

바다의 올레길, 국민과 함께 만든다

- 2024년 행정안전부 전문가 지원 과제 선정 및 위촉식 개최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5월 24일(금)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‘핫플뱃길* 공공서비스디자인단’ 위촉식을 개최한다.

* 명소를 뜻하는 ‘Hot place’와 ‘뱃길’의 합성어로, ‘뱃길을 명소로 만든다’는 의미

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연간 1,4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, 섬 주민 감소,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사 경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해 매년 국가보조항로, 적자항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.

이에, 연안여객선과 항로를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하여 선사 경영 개선과 항로단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「연안교통 혁신대책」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, 올해 초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.

우선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학계, 전문가, 일반 국민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함께*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운영하여 ‘핫플뱃길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. ‘핫플뱃길’ 프로젝트는 여객선 및 항로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. 대표적으로,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성 등을 보유한 10개 항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선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여객선 내부를 문화공간으로 꾸며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.

* (구성) 해양수산부, 군산시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어촌어항공단, 한국해운조합, 한양여자대학교, 한양대학교, 한서대학교, 로보앤컴퍼니 / (자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

올해는 우선 시범적으로 군산-어청도 항로를 운항하는 어청카훼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, 시범사업 성과 등을 검토하여 내년에는 10개 항로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. 아울러, ‘핫플뱃길’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말 ‘2024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전문가 지원 과제’에도 선정되며 전문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되어 추진 동력도 갖추게 되었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여객선과 항로가 육지의 올레길과 같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.”라며, “국민들이 여객선과 뱃길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운항에도 더욱 힘쓰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도경식 (044-200-5730)
	연안해운과	담당자	사무관	한정수 (044-200-5731)

□ 추진 배경

- 섬 주민 감소, 고유가 등으로 향로단절 위험에 처한 연안여객선을 이용자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수요 창출로 돌파구 마련 필요

- 기존 국가지원 중심의 향로단절 방지 정책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나 이용 경험을 활용한 新 수요창출 등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* 필요

* 연간 2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낮은 서비스와 향로단절 문제 상존

□ 추진방안

- (주요 내용) 여객선과 향로 이용객이 보고 즐길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집객과 재이용 활성화

- ① (햇플 벳길 10) 수려한 자연경관, 생태환경, 역사성 및 문화적 특이성 등이 있는 10개 향로를 선정하고, 선상 프로그램 운영

- ② (갬성가득 여객선) 햇플 벳길 10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특정한 주제로 꾸미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

* 여객선 내 공간을 명절, 크리스마스 및 부처님 오신날, 봄꽃, 단풍, 캠핑, 음악, 그림 및 사진, 시, 향토음식, 지역특산물 등 주제를 가지고 꾸며 즐길 공간으로 탈바꿈

- ③ (도전 골든배) 햇플 벳길 10 향로를 모두 이용한 승객을 선정하여 배 문양(또는 모양) 금색 메달을 증정하는 챌린지 추진

- ④ (지역상생) 여객선 티켓을 쓰레기봉투로 제작하여 배포, 섬 방문 후 육지로 돌아올 때 섬 쓰레기를 담아오면 명예 섬주민증 수여

* 지자체는 육지에 위치한 기항지에서 이용객이 배출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필요

□ 향후 추진계획

- 공공서비스디자인단 활동('24.5~10월)

-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 대회 참가('24.11)

- '햇플벳길 추진계획 마련' 및 향로별 컨설팅 등 지원('24.12~)

참 고

관련 사진



< 어청카훼리호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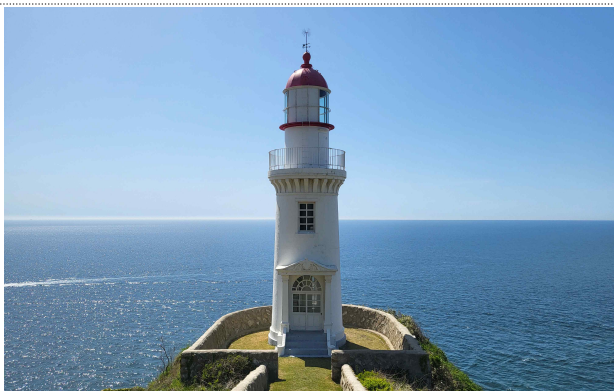
< 어청카훼리호 선상 일몰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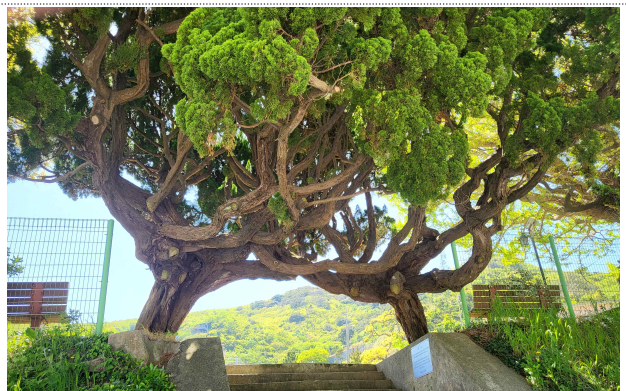
< 어청도 입도객 행렬 >



< 어청도 >



< 어청도 등대 >



< 어청초등학교 사랑나무(연리지) >



< 어청도 한반도 지형 >



< 어청도항 해무와 일출 >